문화탐방

제주 고유 섬 이름〔島嶼名〕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오 창 명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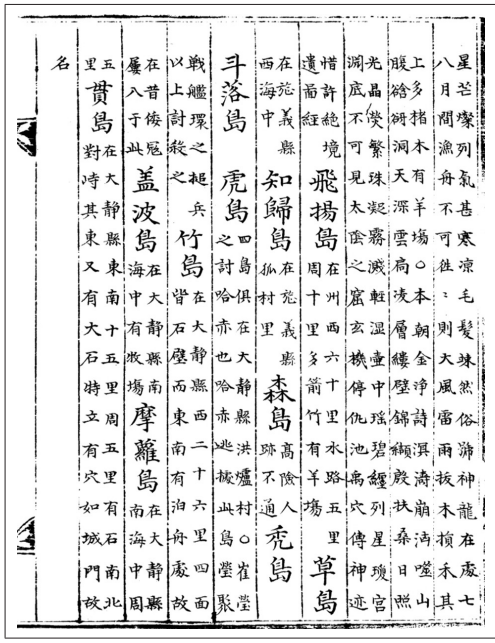
예전보다 살기가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점차 문화(文化)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많아졌다.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삶이 더 편해질 거라고 하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가 있으면 삶이 더 편해질 거라고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삶이 더 편해지거나 풍요로울 거라고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 폰이 없는 사람은 컴퓨터와 스마트 폰이 있으면 삶이 더 편해지고 풍요로울 거라고 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화라는 말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인 소득과 정신적 소득 등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어낸 모든 것이 문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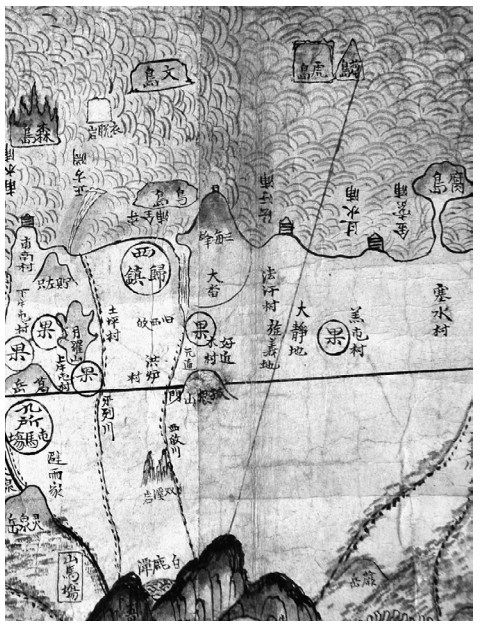
제주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제주 사람들이 제주 땅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이 제주문화이다. 문화 가운데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과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을 뜻하는 전통(傳統)도 포함된다. 전통에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좋은 전통도 있고,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았으면 하는 나쁜 전통도 있다.

제주도(濟州島), 곧 제주 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이 있다. 그 섬 이름은 대부분 우리말, 곧 고유어로 불러왔다. 그런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자식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억지 한자를 붙여서 바꿔 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후세들이 섬 이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왜곡하거나, 엉뚱한 뜻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제주 섬의 고유 이름을 되찾는 것은 우리 조상의 사상과 사고를 되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곧 바른 전통을 찾는 것이고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다.


星芒燦列氣甚寒凉毛髮竦然俗號神龍在處七
八月間漁舟不可往〻則大風雷雨拔木損禾其
上多楮木有羊場○本朝金淨詩溟濤崩沔噬山
腹谽谺洞天深雲扃凌層縷壁錦纈殷扶桑日照
光晶熒繁珠凝霧濺輕湿壺中瑤碧纏列星瓊宮
淵底不可見太陰之窟玄機停仇池禹穴傳神迹
惜許絶境遺畵經
飛揚島在州西六十里水路五里周十里多箭竹有羊場
草島在施義縣西海中
知歸島在施義縣孤村里
森島高險人跡不通
禿島
斗落島
虎島四島俱在大靜縣洪爐村○崔瑩之討哈赤也哈赤逃據此島瑩聚
戰艦環之挹兵以上討殺之
竹島在大靜縣西二十六里四面皆石壁而東南有泊舟處故
在昔倭寇屢入于此
蓋波島在大靜縣南海中有牧場
摩蘿島在大靜縣南海中周
五里
貫島在大靜縣東南十五里周五里有石南北對峙其東又有大石特立有穴如城門故
名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7세기 말)의 '전라도, 제주목' 기사에서 확인되는 제주도 주변의 섬 이름 표기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18세기 중반)의 서귀포 앞 바다에 있는 섬 이름 표기

2. 기존 고시 지명과 제주통계연보의 섬 이름 표기

이 글에서 말하는 '섬 이름〔島嶼名〕'[1]은 '섬'과 일부 '여'를 포함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이른다고 했으나, 제줏말에서는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바위도 '여'라고 부른다. 이렇게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여'

는 '섬 이름'에 포함시켜서 언급한다. 한편 『제주어사전』(1995)와 『수정 · 증보 제주어사전』(2009)에는 '여 · 여을 · 여의 · 흘'을 "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를 이른다고 했으니, 어휘 풀이에 문제가 있다.

먼저 『제주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 2015년)와 『제주시 통계연보』(2015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15년) 등에 제시된 유인도와 무인도,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서비스'와 '국토정보 플랫폼'의 '지명 검색' 등의 지명 표기를 참고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제주 통계연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서비스'	국토정보맵 검색	소 속
1	제주시 (유인도 6 무인도 62 = 68)	비양도	비양도	○	(한림읍)
2		우도	우도	○	(우도면)
3		상추자도	상추자도	○	(추자면)
4		하추자도	하추자도	○	(추자면)
5		횡간도	횡간도	○	(추자면)
6		추포도	추포도	○	(추자면)
7		코끼리바위	×	×	(한림읍 협재리)
8		비양도용암기종	비양도용암기종	×	(한림읍 협재리)
9		란도	토끼섬, 란도	난도, 토끼섬	(구좌읍 하도리)
10		토끼섬남쪽여	×	×	(구좌읍 하도리)
11		다려도	다려도 달서등대	다려도 달려도	(조천읍 북촌리)
12		당신여	×	×	(조천읍 북촌리)
13		다려도북쪽여	×	×	(조천읍 북촌리)
14		낫개	×	×	(조천읍 북촌리)
15		다려도동쪽여	×	×	(조천읍 북촌리)
16		차귀도	차귀도	차귀도	(한경면 고산리)
17		와도	와도	와도	(한경면 고산리)
18		목여	×	×	(한경면 고산리)
19		형제바위1	×	×	(한경면 고산리)
20		형제바위2	×	×	(한경면 고산리)
21		썩은여	×	×	(한경면 고산리)
22		새섬북쪽여	×	×	(한경면 고산리)
23		죽도	×	×	(한경면 고산리)
24		새섬1	×	×	(한경면 고산리)
25		새섬2	×	×	(한경면 고산리)
26		방어덕	×	×	(한경면 고산리)
27		죽도서북쪽여	×	×	(한경면 고산리)
28		죽도서남쪽여	×	×	(한경면 고산리)
29		죽도동쪽여	×	×	(한경면 고산리)

1) 우리나라의 지명은 크게 '자연지명'(국토지리정보원 담당)과 '해양지명'(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으로 나누고 있는데, '섬 이름'〔島嶼名〕은 '자연지명'의 '섬(해양)' 지명에 속한다. 해양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포 및 수로 등의 해상지명과, 초, 퇴, 해저협곡, 해저분지, 해저산, 해저산맥, 해령 및 해구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이른다. 서귀포의 '새섬'과 우도의 '비양도' 등은 본섬과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독자적인 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구 분	제주 통계연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서비스'	국토정보맵 검색	소 속
30	제주시 (유인도 6 무인도 62 = 68)	두령서	×	두령여	(추자면 영흥리)
31		개인여	×	개인여	(추자면 영흥리)
32		이도	예도	이섬	(추자면 영흥리)
33		미역서	×	미역섬	(추자면 영흥리)
34		납덕여	×	납덕이	(추자면 영흥리)
35		검둥여	검등여	검둥여	(추자면 영흥리)
36		시루여	시루여	시루여	(추자면 영흥리)
37		사수도	×	사수도	(추자면 예초리)
38		우두도	우로(×)	×	(추자면 예초리)
39		염도	염섬	염섬	(추자면 예초리)
40		가망여	×	×	(추자면 예초리)
41		상도	상도	×	(추자면 예초리)
42		우비도	우비	×	(추자면 예초리)
43		돌도1	돌도	×	(추자면 예초리)
44		돌도2	×	×	(추자면 예초리)
45		방서	×	모여	(추자면 예초리)
46		오등서	×	×	(추자면 예초리)
47		혈도	×	구멍섬	(추자면 예초리)
48		등대서	×	×	(추자면 예초리)
49		직구도	직구도	직구	(추자면 대서리)
50		흙검도	× (추자군도?)	검은가리	(추자면 대서리)
51		수령도	수령섬	수령여	(추자면 대서리)
52		다무내미	×	다무내미	(추자면 대서리)
53		망도	보론섬	보론섬	(추자면 대서리)
54		악생도	악생이	악생이	(추자면 대서리)
55		공여도	×	공여	(추자면 대서리)
56		녹서	×	×	(추자면 대서리)
57		문여	×	문여	(추자면 대서리)
58		흑서	×	×	(추자면 대서리)
59		망서	×	×	(추자면 신양리)
60		수덕	수덕도	수덕이	(추자면 신양리)
61		청도	청도	푸랭이	(추자면 신양리)
62		절명서	×	절명이	(추자면 신양리)
63		외간도	외곽도	밖미역섬 밖미역섬아래초	(추자면 신양리)
64		섬도	섬도	섬생이	(추자면 신양리)
65		해암도	×	해암서	(추자면 묵리)
66		회도		×	(추자면 묵리)
67		수영도	×	수영여	(추자면 묵리)
68		애업은돌앞여	×	×	(화북동)
69	서귀포시 (유인도 2, 무인도 9 = 11)	가파도	가파도	가파도	(대정읍)
70		마라도	마라도	마라도	(대정읍)
71		지귀도	지귀도	지귀도	(남원읍 위미리)
72		형제1도	형제도숨은여(?)	형제도	(안덕면 사계리)
73		형제2도	형제도숨은여(?)	형제도	(안덕면 사계리)
74		섶섬	섶섬	섶섬	(송산동 보목동)
75		문섬	문섬	문섬	(송산동 서귀동)
76		제2문섬	×	×	(송산동 서귀동)
77		범섬	범섬	범섬	(대륜동 법환동)
78		제2범섬	×	×	(대륜동 법환동)
79		서건도	서건도	×	(대천동 강정동)
	총 79개				

3. 제주 섬의 본디 이름과 한자차용표기

3.1 무엇이, 어느 것이 고시 지명인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굴동네의 하도어촌계 공동창고 동북쪽, 하도리 '웽이ᄆᆞ르 동산'과 '꽝시부리 · 광시부리' 북쪽 바다에 자그마한 섬이 있다. 민간에서는 문주란이 자란다고 해서 '문주란섬' 또는 '난도(蘭島)'라 부르고, 예전에 토끼를 놓아길렀다는 데서 '토끼섬'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난ᄃᆞ리여' 또는 '난ᄃᆞᆯ여 · 난들여'로도 불러왔다. 그런데 이 섬의 고시 지명이 무엇인지 헛갈리게 하는 자료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문제다.

하도리 상공에서 바라본 섬 전경

종달리 지미봉에서 바라본 섬 전경

『제주시 통계연보』(2015)를 보면, '란도'로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한자 표기 '蘭島'를 우리말로 읽어서 쓴 것으로 보이나, 이는 '蘭島(난도)'의 잘못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에서 '란도'를 검색하면 '란도'는 검색되지 않고, '난도'를 검색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섬으로 검색되고,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난도(Nando)
[분류] 자연지명 〉 섬(해양) 〉 섬
[한글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한문주소] 濟州市 / [영문주소] Jeju-si
[지명유래] 육지에서 0.5리 떨어진 조그만 섬으로서 문주란이 천연적으로 생산 · 육성되므로 난도라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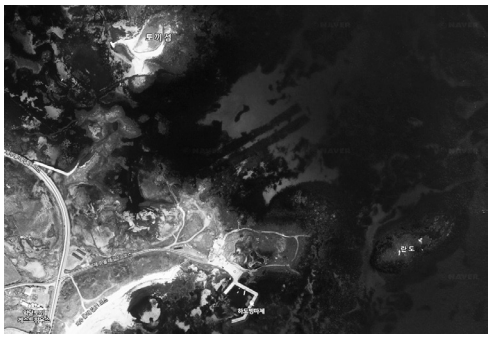
그러나 '난도'의 위치는 '난도'의 본섬이 아닌, '난도' 남동쪽 바다, 곧 하도리 '웽이ᄆᆞ르동산'과 '꽝시부리 · 광시부리'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섬에 '란도,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섬은 섬〔島嶼〕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로, 문주란이 자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란도(?)'도 아니다. 이 섬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반대여' 또는 '반다여', '반대섬' 또는 '반다섬' 등으로 불러왔던 섬이다.

이 섬은 고광민(2003:78)에서 '반대섬'으로 표기되고, 다음 인터넷 지도에서는 '반다여'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에서 '토끼섬'을 검색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 85'번지에 있는 섬이라 하여, '토끼섬'의 본섬에 위치 표시를 하고 있다. 그 섬에도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라 표기해놓았다.

그런데 다음 인터넷 지도와 네이버 인터넷 지도를 통해 이 섬을 검색하면, 두 지도 모두 본섬에 '토끼섬'이라 표기했으나, 소위 '반대섬'에는 다음 지도에서 '반다여'로, 네이버 지도에서 '란도'로 표기되어 있다. 네이버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자 지도와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다음 지도는 그들 지도와 다르게 되어 있다.

다음 전자 지도 : 토끼섬(왼쪽 위),
반다여(오른쪽 아래)



네이버 인터넷 지도 : 토끼섬(왼쪽 위),
란도(오른쪽 아래)

문제는 국토지리원의 전자 지도와 네이버의 전자 지도에서 확인되는 '란도'는 고시 지명에 있으나, 엉뚱한 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지리원의 전자 지도에서는 '란도'가 검색되지 않고 '난도'가 검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 지도 지명과 검색 지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더욱 황당한 것은 『제주시 통계연보』(2015)의 내용이다. 이 책에는 '토끼섬'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란도'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 섬은 지금의 '토끼섬'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그 '토끼섬' 바로 아래쪽에 아주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 섬 이름은 '토끼섬남쪽여'라 했다. 그렇다면 '난도, 란도, 토끼섬' 가운데 어느 것이 고시지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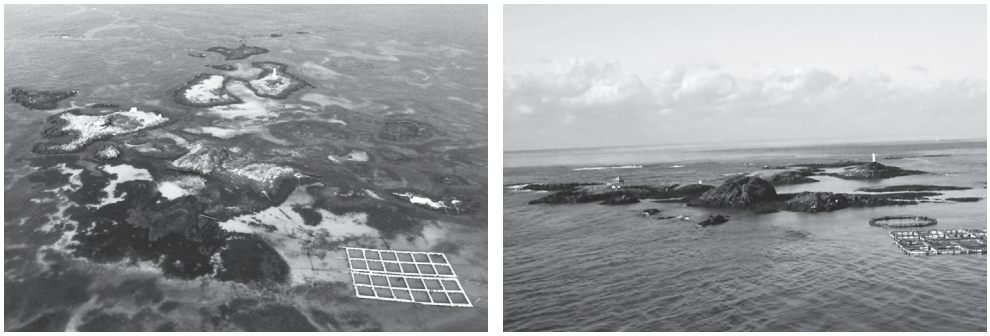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광고하고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명정보는 우리원에서 고시한 고시지명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관련문의 : 031-210-2708

그렇지만 인터넷 지도의 지명과 검색 지명이 서로 다르고, 검색된 지명의 위치 또한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더 큰 문제는 그 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데, 어찌 제주문화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3.2 섬 이름〔島嶼名〕은 마음대로 붙이는 것인가, 기초 조사와 전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붙이는 것인가?

고시 지명은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담당자나 전문가가 기초 조사와 현지 조사를 할 것이고, 시 · 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담당자의 기초 조사와 현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 · 도 지명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조사 ·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이나 지방의 소지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하늘에서 본 '다려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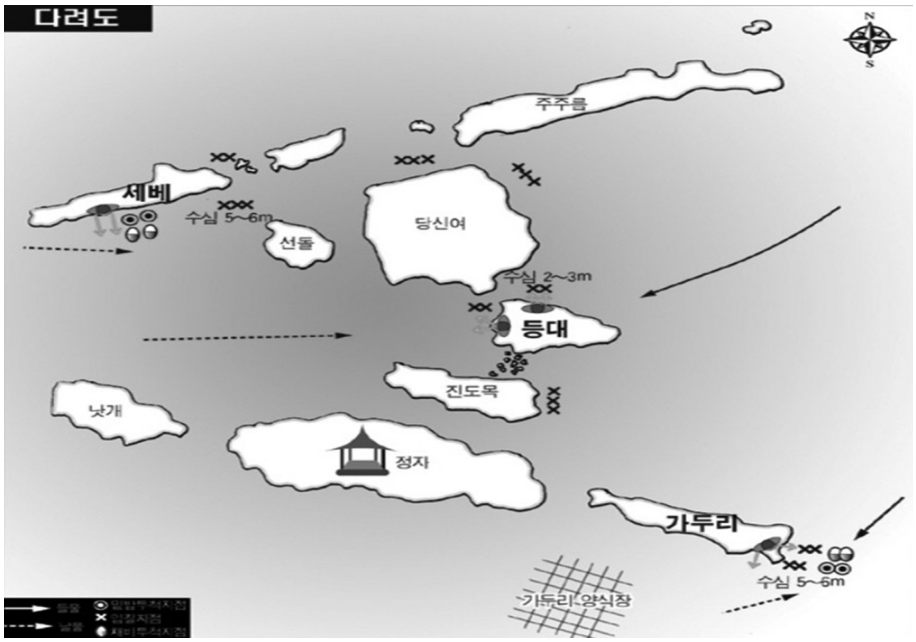
거쳤다고 해도 그것은 제 지명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섬 이름이 눈에 많이 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바다에 여러 개의 섬이 있다. 예전에는 한 개의 섬으로 인식해서 '다려섬 · 달려섬' 또는 '다려도 · 달려도' 등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하려는 데서 여러 개 섬 이름이 등록, 고시되어 있다.

『제주시 통계연보』(2015)를 보면, '다려도, 당신여, 다려도북쪽여, 낫개, 다려도동쪽여' 등 5개 섬으로 나뉘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검색 사이트에서 '다려도' 이외의 '당신여, 다려도북쪽여, 낫개, 다려도동쪽여' 등 4개 이름은 검색도 되지 않고, 어느 쪽에 있는 섬인지 그 위치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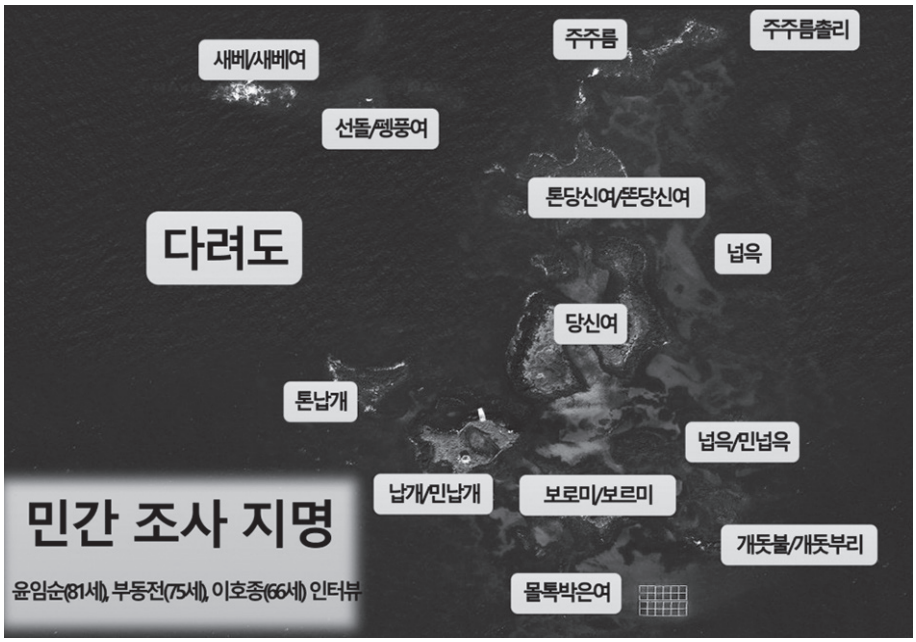
한편 『제주시 통계연보』(2015)를 보면, '다려도'가 따로 있고, '당신여, 다려도 북쪽여, 낫개, 다려도동쪽여' 등을 등록했는데, 어느 것이 '다려도'이고, 어느 것이 '당신여'인지, 어느 것이 '낫개'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민간에서 전하는 낚시 포인트 지도를 보면, 등대가 있는 섬이 있고, 그 위쪽에 '당신여'가 있고, 등대가 있는 섬 서남쪽에 '낫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간의 낚시 포인트 지도

그러나 북촌리에서 뱃일을 했던 어른이나 하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서 지명을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에서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한 다려도의 섬과 여 이름

곧 북촌리 북쪽에 있는 섬 전체를 '다려도'라 하고, 그 중 가운데에 있는 2개의 섬을 '당신여'라 하고, 그 북쪽에 있는 것을 '톤당신여 · 뚠당신여'라 하고, 그 남쪽에 있는 것을 '보로미 · 보르미'라 하고, 그 서쪽에 있는 것을 '납개(또는 민납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시 통계연보』의 이 지역 섬 이름과 비교하면 아주 다르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만 놓고 보면, 기존의 지명 조사, 조사 심의, 지명 고시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 수 있다.

3.3 '석은섬 · 썩은섬'을 왜 '서건도'라 하나?

서귀포시 강정동 바닷가에 '썩은섬'이라 부르는 섬이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석은섬〉썩은섬'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 고지도에는 '석은섬〉썩은섬'을 한자차용표기로 써서 腐島(부도)로 표기했다.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18세기 초반)에서 확인되는 부도(腐島) : 江汀浦(강정포) 동쪽에 표기되어 있음.

「濟州三邑都摠地圖(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서 확인되는 '腐島(부도)' : 江汀浦(강정포) 동쪽에 표기되어 있음.

그런데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에 한자로 鋤建島(서건도)로 표기되면서 아예 '서건도'로 써버린 듯하다.

'국토정보 플랫폼'의 '통합검색'에서 '서건도'를 검색하면, 위치가 뜨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산1'번지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지명 유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섬을 '석은섬〉썩은섬'이라 부른 까닭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바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바위를 제주도에서는 '누룩돌'이라 하는데, 돌이나 망치 따위를 두드리면 쉽게 부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석은섬〉썩은섬'이라 부른 것이다.

4. 마무리

문화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이나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고자 습득, 공유, 전달되어진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인 소득을 일컫는다.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인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제주 사람

의 문화가 아니다. 더욱이 엉뚱한 이름이나 정체불명의 이름이 붙여진 섬 이름이라면 오죽하겠는가?

본디 섬 이름을 되찾으려면 제대로 된 기초 조사와 전문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뒤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부실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 엉뚱한 이름들이 등재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비전문적인 지역 지명위원들도 엉터리 이름이 정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제주 선인들의 사상과 사고가 반영된 본디 섬 이름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발전포럼

* 참고문헌

고광민(2003),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I』,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16), "제주 도서명과 해양지명", 『박물관과 무형유산』, 2016년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집.